

대경 양돈

조합원님들과 함께하는
대구경북양돈농협 소식

2025 Vol. 19



Contents

2025 Vol.19

조합원님들과 함께하는
대구경북양돈농협 소식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이상용 조합장

발행처 대구경북양돈농협 소식지편집위원회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675

TEL 053-552-7205

FAX 053-558-9480

홈페이지 <http://dkpork.nonghyup.com>

이메일 nh177098-1@nonghyup.com

기획·제작 kidp 공인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멀티애드 TEL 053-751-6562

대구경북양돈농협 소식지는 우리 농협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식지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정보가 있으시면 우리 농협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 인사말

- 04 농심천심의 뜻을 받들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Special 대경

대구경북양돈농협의 POWER

- 10 - 현장에서 답을 찾다!
조합원 간담회
- 12 - 필드에서 쌓아가는 팀워크!
제3회 골프대회
- 16 - 대구경북양돈농협을 이끌
미래 동력 중동지점 이전





대경 FOCUS

- SPOTLIGHT**
- 20 이기홍 조합원,
대한한돈협회 회장 취임
- 대경 ISSUE**
- 22 올드림한돈
소비촉진행사 현장 속으로
- WORLDWIDE**
- 24 우수조합원·대의원
선진지 견학
- 교육 현장 속으로**
- 26 올드림에듀 6기 START!
- 대경양돈의 꿈**
- 28 조합원 실익 지원 사업
- ZOOM IN**
- 30 전국으로 홍보된
대구경북양돈농협

대경 NEWS

- 대경 INSIDE ①**
- 32 정기총회 & 임시총회
- 대경 INSIDE ②**
- 34 예수금 5,000억 원 달성 &
청정축산환경대상 우수상
- 알려드립니다**
- 36 신규 조합원 & 조합원 경조사
- 대경 NEWS**
- 38 - 돼지고기 수급 안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산불 피해 현장 방문 및
구호물품 전달
-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실시
-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과
돼지 출하 업무협의

LIFE STORY

- 칼럼**
- 44 삼출성표피염,
반복 발생의 고리를
끊는 법
- Travel**
- 48 이 겨울,
여행의 바람이 분다
- 레시피**
- 50 돼지고기 특수부위
전성시대

농심천심의 뜻을 받들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도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경북양돈농협은 뱀의 지혜롭고 강한 추진력을 이어받아 힘차게 출발했다고 자신합니다. 올해는 국제 곡물 가격의 불안정, 인건비 상승,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굳건한 의지와 협동의 힘으로 우리 대구경북양돈농협과 양돈산업은 또 한걸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발맞춰, 조합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우리 농협은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조합원과 함께 성장하는 대구경북양돈농협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협은 조합원의 실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봄, 경북 지역을 덮친 산불에 피해를 입은 조합원 농가에 신속히 긴급 구호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혹서기에 고온으로 인한 돼지의 사료섭취량 저하, 성장속도 감소 등을 예방하기 위해 7천만 원 상당의 사료 첨가제를 지원하여 농가의 여름철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 양돈인을 양성하기 위해 올드림에듀 6기를 개강하여 다양한 전문이론교육과 현장실습 교육을 제공하였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약 120명의 청년 양돈인을 발굴해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가 실익을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경북양돈농협은 여러분과 함께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조합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농심천심’ 2025년, 아름다운 결실을 맺겠습니다!

‘농심천심(農心天心)’은 농업인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양돈농협은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모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겠습니다. 연말을 앞둔 이 시기, 모든 조합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바라며 올 한 해 남은 일들도 잘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

대구경북양돈농협조합장

이 상 용

2025년 현장 속으로, 조합원 곁으로!

현장으로 향한 발걸음, 조합원을 향한 마음

1월

- 01.10. 우리 농협 인사위원회
- 01.13. 자체 결산감사
- 01.20. 영남상생협의회
- 01.24. 제1회 이사회

2월

- 02.07. 우리 농협 정기총회
- 02.12. 우리 농협 진도분석회의
- 02.13. 우리 농협 노조총회
- 02.17. 상인지점 현장경영 실시
- 02.18. 삼성창조캠퍼스지점
현장경영 실시
- 02.19. 효성지점 현장경영 실시
- 02.24. 영남상생협의회
- 02.25. 윤리경영실천결의대회
본점 현장경영 실시
- 02.26. 대천지점 현장경영 실시
- 02.28. 축산신문 기자 인터뷰
중동지점 현장경영 실시



3월

- 03.11. 돼지고기 수급 안정을 위한
기획재정부 간담회
- 03.14.~16. 미삼페스티벌
- 03.20. 제2회 이사회
- 03.24. 우리 농협 임시총회
- 03.25. 영남상생협의회
- 03.31. 제3회 이사회

2025



6월

- 06.12. 제5회 이사회
- 06.13. 우리 농협 진도분석회의
- 06.18. 한돈자조금위원회
- 06.23. 영남상생협의회
- 06.26. 농협중앙회 총회 참석
- 06.30. 영남권 축협조합장 간담회

7월

- 07.01. 우리 농협 정기조례
- 07.10. 제6회 이사회
우리 농협 진도분석회의
- 07.21. 영남상생협의회

8월

- 08.05. 조합원 가족 장학금 전달식
- 08.12. 농협사료 이사회
우리 농협 진도분석회의
- 08.18.~20. 우리 농협 자체 감사
- 08.20. 한돈자조금대의회 간담회
- 08.25. 영남상생협의회
- 08.27. 제7회 이사회

2025년에도 조합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떤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다가갔다.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대구경북양돈농협의 나침반이 되었다. 조합장은 현장을 찾아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조합원과 함께 성장하는 현장 중심 경영, 그 길을 돌아본다.

4월

- 04.09. 박종우 조합원 청정축산대상 우수상 수상
- 04.10. 진도분석회의
달성군농협운영협의회
- 04.11. 구미·김천 지역 조합원 간담회
- 04.15. 경산·청도 지역 조합원 간담회
- 04.17. 고령 지역 조합원 간담회
- 04.18. 성주·칠곡·대구·기타 지역 조합원 간담회
- 04.21. 영남상생협의회의
- 04.22. 문경·상주 지역 조합원 간담회
- 04.23. 경주·포항·영덕·울진 지역 조합원 간담회

5월

- 05.02. 예천·안동·영주·봉화 지역 조합원 간담회
- 05.07. 군위·의성 지역 조합원 간담회
- 05.08. 영천·청송 지역 조합원 간담회
- 05.12. 우리 농협 진도분석회의
- 05.13.~16. 대의원,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 05.20. 제4회 이사회
- 05.26. 영남상생협의회의

영천·청송 지역 조합원 간담회



9월

- 09.01. 농협사료 이사회
- 09.03. 우리 농협 노조 임시총회
- 09.10.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우리 농협 진도분석회의
한용규 조합원 우수축산인상 수상
- 09.15. 중동지점 이전
- 09.22. 영남상생협의회의

10월

- 10.02. 상호금융 예수금 5,000억 원 달성탑 수상
중동지점 이전 개점식
제8회 이사회
- 10.14. 우리 농협 진도분석회의
- 10.16. 농협사료 이사회
- 10.19.~23. 영남축산상생협의회의
- 10.25.~26. 바로마켓 한돈 소비촉진행사
- 10.29. 제3회 조합장배 골프대회



중동지점 개점식

소통·팀워크·성장이 만든 에너지 대구경북양돈농협의

POWER

조합원들과의
소통으로 하나되는

**소통
POWER**



소통

대회로
팀워크를 다지는

**팀워크
POWER**



팀워크

지점 이전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성장
POWER**



**조직
조직**

대구경북양돈농협은 지난 10년 동안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조합원과 함께 성장해왔다. 지역 곳곳을 누비며 소통을 이어온 발걸음은 서로를 더욱 단단히 연결하는 힘이 되었다. 가을 필드에서 하나로 뭉친 우정과 팀워크는 대경양돈의 공동체적 가치를 더욱 빛나게 했고, 지점을 현대화하고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여온 노력은 미래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소통과 협력, 발전을 향한 뜨거운 의지가 모여 대구경북양돈농협의 POWER를 완성한다.

소통
POWER

현장에서 답을 찾다! 조합원 간담회

현장 중심 소통을 해온 대구경북양돈농협은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경북의 각 지역을 방문,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구와 경북, 경남 지역 조합원들을 만나며 10년간의 성장을 함께 돌아봤다.



대구경북양돈농협은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대구를 비롯해 경북, 경남 지역의 곳곳을 돌며 조합원들을 만났다. 지역별 조합원 간담회에는 대구·경북·경남 지역 조합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경양돈에 큰 관심을 가진 조합원들이 열띤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대경양돈은 조합원 간담회에서 조합 결산 결과와 10년간 대경양돈의 발전 추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각종 조합원 지원 사업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된 주요 사업들도 브리핑하며 홍보효과를 올렸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성과 중 농협 최초 한돈전문관인 한돈프라자와 한돈판매장, 중동지점과 삼성창조캠퍼스지점을 개점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다. 2014년도 대비 총자산이 230% 증가했고, 자기자본 260% 증가, 출자금 잔액 310% 증가, 출자금 1인당 평균잔액 686% 증가, 1인당 교육지원비 407% 증가 등 괄목할 만한 성장에 대한 설명에 조합원들도 크게 만족해했다.

Communication
POWER

조합원 간담회 타임라인

경산·청도



성주·칠곡·대구·기타 지역



경주·포항·영덕·울진



군위·의성



04. 11.

구미·김천



04. 15.

04. 17.

고령



04. 18.

04. 22.

문경·상주



04. 23.

05. 02.

예천·안동·영주·봉화



05. 07.

05. 08.

영천·청송



팀워크
POWER

조합 창립 43주년 기념 필드에서 쌓아가는 팀워크! 제3회 골프대회

푸르고 너른 필드에서 다지는 우정! 매년 가을마다 펼쳐지는 대구경북양돈농협의 골프대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조합원들의 설렘을 안고 열렸다. 창립 43주년을 맞이한 대경양돈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하고 팀워크를 다진 그날의 현장을 살펴본다.





Teamwork POWER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고,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며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인 가을. 지난 10월 29일 칠곡세븐밸리 컨트리클럽에 대구경북양돈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과 임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골프대회가 열렸다. 이번 골프대회에는 대구·경북 지역의 양돈농가와 대한한돈협회 및 경북도협회의 회 등 축산단체, 농협 경북본부, 대구본부, 농협 사료 외 계열사 등과 사료, 약품, 기자재, 육가공업체 등 축산 관련 업체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제3회 골프대회에는 조합 창립 43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총 43팀, 200명이 참가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12시부터 대회를 시작해 오후 6시 30분에 경기가 막을 내렸다. 6시 30분부터 진행된 2부에서는 만찬을 즐기며 오늘의 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축하공연 등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참여해준 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도 진행됐다. 골프대회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 등으로 화기애애했던 대회가 마무리되었다. 대구경북양돈농협의 골프대회는 조합원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으로 대경양돈의 전통으로 새롭게 자리하고 있다. 이 날을 위해 대구경북양돈농협을 비롯 농협사료 본사, 농협중앙회와 각종 관련 업체에서 후원에 참여해 참여자 전원에게 골프공과 홍삼과우치, 한돈세트, 기념수건 등이 제공되었으며, 홀인원, 메달리스트들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전달했다. 초록 잔디 위에서 나는 웃음과 추억, 그날의 현장 속에서 피어난 팀워크는 대구경북양돈농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성장
POWER

대구경북양돈농협을 이끌 미래 동력 중동지점 이전

대구경북양돈농협은 삼성창조캠퍼스지점을 시작으로 대천지점, 중동지점 이전까지
쉽 없이 금융서비스 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해 앞장서왔다. 조합원들과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금융지점의 현대화에 앞장서는 대구경북양돈농협! 2025년의 핫이슈,
이전한 중동지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GROWTH POWER



상담실



ATM



대기실



지난 10월 2일, 대구경북양돈농협 중동지점 이전 개점식이 열렸다. 지난 9월 15일부터 이전 개점해 영업 중인 중동지점은 대구수성골드클래스 상가동 3개 호실을 자가 점포로 매입, 이전했으며 이번 이전으로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접근성, 쾌적한 환경,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중동지점 이전은 대경양돈에서 직접 자가 점포를 매입해 이전했다는 것에 큰 뜻이 담겨있다. 삼성창조캠퍼스지점 오픈부터 대천지점과 이번 중동지점까지 고객들과 조합원들에게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경양돈의 자부심이다. 이로 인해 대경양돈의 직원들은 더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며, 고객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고객들의 지점 방문은 더욱 늘어나 상호금융 예수금 5,000억 원을 넘어 1조 원 시대를 여는 새로운 기반을 다지게 됐다.

전 직원이 함께 성장의 해를 만들겠습니다



대구경북양돈농협 중동지점
이동한 지점장

중동지점 이전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새 건물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편리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간 구성에 신경을 쓴 점이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양돈농협에서 상가를 매입해서 보금자리를 옮긴 것이라 보니 직원들의 자긍심도 더 높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희망적인 부분이 배가 되다 보니 긍정적인 결과를 계속해서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중동지점의 목표는?

올해는 지점 이전 등의 일이 많았음에도 초과 목표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엔 금융 영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전망이 있지만, 새로운 지점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전 직원이 힘을 합

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동지점이 고객들에게 어떤 지점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지?

수성구 인근에 다른 농협 지점들이 많이 분포해있습니다. 그만큼 금융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구경북양돈농협 중동지점은 치열한 경쟁에서도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수성구를 대표하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중동지점 직원들 모두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하면 대경양돈 중동지점!’이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정재우 계장, 우월순 팀장, 백지원 계장,
이동한 지점장, 고나현 주임, 이태훈 과장대리

대경 FOCUS

20 SPOTLIGHT

이기홍 조합원, 대한한돈협회 회장 취임

22 대경 ISSUE

올드림한돈 소비촉진행사 현장 속으로

24 WORLDWIDE

우수조합원·대의원 선진지 견학

26 교육 현장 속으로

올드림에듀 6기 START!

28 대경양돈의 꿈

조합원 실익 지원 사업

30 ZOOM IN

전국으로 홍보된 대구경북양돈농협



NEW Leadership의 탄생!

대구경북양돈농협

이기홍 조합원

대한한돈협회 회장 취임

지난 11월 25일, 대구경북양돈농협에 즐거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바로 대구경북양돈농협 이기홍 조합원이 대한한돈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대한한돈협회의 불어든 새로운 리더십이 기대된다.





자랑스럽다! 이기홍 조합원, 대한한돈협회 회장 취임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대한한돈협회 제20·21대 회장 및 제12·13대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일 충남 당진 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과 이에 따른 48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동으로 인해, 비상방역체제 속에서 치러져, 협회 임원과 외부 내빈만을 초청해 행사를 축소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구경북양돈농협의 이기홍 조합원이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및 제13대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으로 취임해 경사를 알렸다. 이번에 취임한 이기홍 회장은 경북 고령에서 해저음영농조합법인을 운영 중인 양돈인이다. 이전부터 대한한돈협회 고령지부장, 중앙회 부회장, 환경대책위원장,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대구경북양돈농협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감사와 대의원 또한 맡는 등 우리 조합의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다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적 활동을 해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규제보다 지원으로 농가가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며, 우리의 환경과 방역을 우리가 책임지는 한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겠다. 오늘 이 자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축소 운영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는 회원 농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국의 한돈농가 여러분이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한돈산업의 주인이며, 제21대 집행부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한돈산업의 발전을 다짐한 그에게 이상용 대구경북양돈농협조합장은 꽃다발을 전달하고 선배 한돈인으로서 따뜻한 격려를 전달하는 등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

양돈산업을 위한 아름다운 기부

이기홍 신임 회장은 양돈산업의 발전을 약속한 이날 파격적인 기부 약속도 함께해 화제를 모았다. 평소에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양돈산업을 아끼는 마음으로 기부를 해와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터티’ 회원으로 활동 중인 이기홍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이기홍 아너스 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기홍 회장은 회장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지급되는 활동비 전액인 2억 4천만 원을 협회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고 선언했고, 이날 현장에서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향후 협회 장학사업과 직원 복지,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원 출산장려금 등으로 투명하게 쓰일 예정이다.

올드림한돈
찾아갑니데이~

소비촉진행사 현장 속으로

올드림한돈은 대구경북양돈농협의 한돈 브랜드로 오랜 시간 지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러한 올드림한돈을 알리고, 그 우수성을 전파하기 위해 대경양돈은 소비촉진행사를 진행, 소비자들을 기꺼이 찾아가고 있다.



올드림한돈의 근본 축제!
미삼페스티벌을 시작으로
가을까지 이어진 다양한 소비촉진행사

올드림한돈과 경북의 농산물인 미나리의 환상 궁합을 맛볼 수 있는 지역민들의 축제, 미삼페스티벌이 올해도 성대하게 열렸다. 지난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삼일간 두류정수사업소에서 진행됐다. 미삼페스티벌은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경북 양돈농가와 대구 미나리의 판로 구축, 소비촉진을 위해 탄생됐다. 페스티벌의 대외홍보를 통해 돼지고기와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대구와 경북 지역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장이다. 2019년부터 매년 이어져오고 있는 미삼페스티벌은 양질의 돼지고기와 미나리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페스티벌 현장에서 고기를 직접 구워 먹을 수 있어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또한 경상북도가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만든 바로마켓에 지난 4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참석해 우리 돼지 올드림한돈을 홍보하고 판매했다. 바로마켓은 ‘바로 따서, 바로 와서, 바로 팔며, 바로 사간다’라는 의미로 직거래를 통해 도농상생의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행사다. 대경양돈은 도농상생 실천과 지역민들에게 올드림한돈 홍보를 위해 매년 참석해오고 있으며, 시중 판매가격보다 20~30% 정도 할인 판매해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6월 5일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경북농식품대전에 참여한 대경양돈. 올해로 11회째로 열리는 대전으로, 2025년은 ‘K-경북푸드, 세계를 사로잡다’라는 주제로 식품기업 189개 업체와 시군·유관기관 35개 단체가 참여한 대형 행사였다. 대경양돈은 올드림한돈을 선보이며 대구·경북 돼지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노력했다.



2



3



4



5

9월에는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참가했다.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국내 유일·최대 규모의 축산 전문 박람회로, 올해 박람회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삼일간 ‘축산의 고유가치와 디지털 이행’을 주제로 열렸다. 대경양돈은 축산물 홍보와 할인 판매를 진행해 대구·경북 지역 한돈의 우수성을 알렸다. 청결하고 엄격한 사육 및 제조과정을 거쳐 만든 올드림한돈은 박람회 기간 동안 약 700kg을 판매해 1,5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1, 2 2025 미삼페스티벌

3 바로마켓 행사

4 경북농식품대전 대경양돈 부스

5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수상 모습

일본 북알프스의 설경 속에서 쌓은 추억

우수조합원·대의원 선진지 견학

1년에 한 번, 대구경북양돈농협은 우수조합원과 대의원이 함께 선진지로 견학을 떠나 새로운 추억을 쌓아 왔다.
올해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북알프스라 불리는 도쿄, 다테야마, 오기사와 등을 다녀왔다.

악자지껄 웃음과 함께 도쿄로 출발!

올해 첫 선진지 견학에 들뜬 마음으로 모인 우수조합원과 대의원들. 이번 선진지 견학에는 70명이 참여했다. 얼굴에 핀 웃음꽃을 가득 안고 대구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나리타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첫째 날



첫날은 공항에서 2시간 30분 걸리는 이사와온천으로 이동해 함께 석식을 즐기며 양돈산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온천욕을 하며 피곤함을 풀었다.

5월 13일



둘째 날



5월 14일



봄에 살펴보는 아름다운 설경

둘째 날의 첫 일정은 바로 일본의 북알프스라 불리는 알펜루트 관광이었다. 알펜루트는 도야마현과 나가노현을 동서로 잇는 산악 관광 루트다. 양쪽의 눈벽 높이가 최대 20m에 달해 이를 보는 우수조합원과 대의원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전기버스를 타고 쿠로베담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거대한 산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줬다. 아름다운 수목화 같은 풍경을 살펴본 이들은 천혜의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협곡의 바람을 따라 노닐다

셋째 날에는 우나즈키로 향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쿠로베 협곡 토로코 열차! 작은 철제 객차에 몸을 싣고 협곡을 따라 천천히 달리면 깎아지른 절벽과 질푸른 강물이 이어지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풍광을 자아냈다. 우수조합원과 대의원들은 일상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풀어냈다.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대경양돈은 선진지 견학을 통해 의견 교류의 장을 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유명 고찰인 겐코지 사찰을 관람한 이들은 셋째 날을 온천욕으로 마무리했다.

5월 15일

셋째 날



튼튼하게 커주게, 뒤는 대경양돈이 봐주지 올드림에듀 6기 START!

후계 축산인 양성에 진심인 대구경북양돈농협은 이들을 돕기 위해 올드림에듀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올드림에듀 6기 개강식을 마치고 현장실습까지 진행했다. 양돈업 새싹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올드림에듀 6기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후계 축산인 양성, 문제 없다! 올드림에듀 6기 개강

대구경북양돈농협의 조합원 지원 사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올드림에듀다. 올드림에듀는 양돈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양돈인 육성 프로그램이다. 청년 양돈인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어 양돈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 교류를 도모하고자 고안됐다.

지난 6월 12일, 대구경북양돈농협 대회의실에서 올드림에듀 6기 개강식이 열렸다. 개강식에는 대구경북양돈농협 이상용 조합장을 비롯해 임직원, 6기 교육생들이 함께 자리했다. 올드림에듀는 교육생들이 실무적인 역량을 길러 전문 양돈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이론교육과 현장실습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9년 올드림에듀 1기를 양성한 이후로 지금까지 청년 양돈인 120명을 발굴, 축산업에 청년 인력이 유입되는데 기여해왔다.

개강식에서는 피그스토리 김무열 원장이 올드림에듀 6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양돈산업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상용 조합장은 “올드림에듀 개강식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양돈업에 젊은 바람을 불어줄 청년 양돈인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올드림에듀 교육생들이 양돈산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다. 그리고 이번 경험을 발판삼아 양돈산업을 선도하는 축산인으로 거듭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6월에 진행된 2박 3일 현장실습에는 약 20여 명의 교육생들이 참여했다. 현장실습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사정리에 위치한 피그스토리농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오전에는 이론교육을, 오후에는 농장 견학을 진행했다. 1일차에는 환기교육과 분만사 견학, 분만사 사양관리에 대해, 2일차에는 자돈사 사양관리, 자돈사 환기실습, 육성·비육사 사양관리 등에 대해, 3일차에는 백신의 이해, PRRS 안정화 대책, 교배 등을 배워 이론과 현장 경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





All Dream Edu



1 2025 올드림에듀 6기 개강식
2, 3, 4 올드림에듀 6기 현장실습

조합원과 함께 걸어갑니다 조합원 실익 지원 사업

01

산불 피해 현장 방문 및 구호물품 전달

대구경북양돈농협은 지난 3월 27일과 28일까지 양일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 영덕, 의성 지역의 양돈농가를 급히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실익에 빠진 농가에 위로를 전했다. 안동, 영덕의 피해지역을 방문한 대경양돈은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를 입은 조합원에게 생필품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물품과 피해복구지원금을 전달했다.



조합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대구경북양돈농협의 조합원 지원 사업은 다양하게,
더욱 특별하게 성장하고 있다. 건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합원의 힘이 되어주는
대경양돈의 조합원 실익 지원 사업을 살펴본다.

02

조합원 가족 장학금 수여식 개최

대구경북양돈농협은 조합원 실익 향상,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후계세대 육성 및 발굴을 위해 조합원과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에 열린 2025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씩 조합원 자녀 19명에게 총 3,300만 원을 전달했다.



03

하절기 양돈농가 사료 첨가제 지원

사료 첨가제 지원 사업은 여름철 대구경북양돈농협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약 5,000만 원, 11톤이 넘는 첨가제를 지원했다. 올해는 필수아미노산, 복합효소에 더해 성장촉진에 필요한 천연식물성 지방, 기호성 증대를 위한 향미제 및 효모 등 다양한 첨가제를 공급해 농가의 하계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04

조합원 건강검진서비스

양돈산업의 특성상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만큼 대경양돈은 조합원들의 건강을 생각해 나이 제한 없이 전 조합원에게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한다. 홀수·짝수해 격년마다 3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05

가축재해보험 지원

조합원이 대구경북양돈농협을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본인 부담금의 26%를 출자금으로 적립해 양돈농가의 부담금을 경감하는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별도로 대경양돈 사료를 이용하는 농가에게는 이용실적에 따라 보험가입 지원 장려금을 추가 지급해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퍼진다

전국으로 홍보된 대구경북양돈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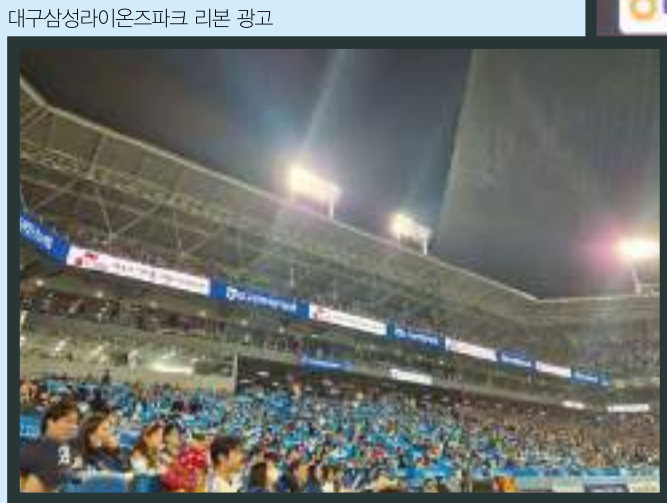
디아즈 50호 홈런 장면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전광판 광고



김영웅 플레이오프 홈런 장면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리본 광고



대경 NEWS

32 **대경 INSIDE ①**
정기총회 & 임시총회

34 **대경 INSIDE ②**
예수금 5,000억 원 달성 &
청정축산환경대상 우수상

36 **알려드립니다**
신규 조합원 & 조합원 경조사

38 **대경 NEWS**
- 돼지고기 수급 안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산불 피해 현장 방문 및
구호물품 전달
-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실시
-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과
돼지 출하 업무협약



대경양돈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걸음 정기총회 & 임시총회

2025년, 대구경북양돈농협은 조합원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지난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결산을 의결했으며, 3월에는 이사 및 감사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대경양돈 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다졌다.



정기
총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다진 2025년의 힘찬 각오

대구경북양돈농협은 지난 2월 7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이상용 조합장을 비롯해 임직원, 조합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대구경북양돈농협 우수조합원에 대한 감사패 시상식과 새롭게 마련된 조합원 환원사업의 일환인 조합원 손·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수여식을 진행해 조합원 간의 화합을 다졌다. 시상식을 마친 후, 개회선언에 이어 결산감사보고와 결산보고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이 이어졌다.

대구경북양돈농협은 지난 2024년 사업연도 동안, 전년대비 예수금 6.22%, 대출금 8.43%가량 성장했으며, 구매 및 판매 사업 또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어냈다. 대구경북양돈농협은 이러한 실적 상승을 바탕으로 당기순이익 34억 3천만 원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양돈농협은 총 42억 원의 이익잉여금 중 출자배당 11억 4천만 원, 이용고 배당 8억 7천만 원 등 총 30억 원 가량의 금액을 조합원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조합원 출자배당금의 경우, 법정 최대 가산이율 2%를 더한 이율로 배당함으로써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환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총회는 정기총회가 열린 후 한 달 후인 3월 24일에 열렸다. 임시총회가 열린 달에는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질병 매몰지 안전점검이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던 시기라 임시총회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간소하게 치러졌다. 임시총회에서는 대구경북양돈농협을 이끌어갈 동력인 이사 및 감사 선거가 진행되었으며,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경제적 어려운 시기인 만큼 2025년에도 힘찬 노력을 통해 대경양돈의 성장저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년 대구경북양돈농협 임원 선거 당선인

구분	성명	지역	구분	성명	지역
상임이사	이동환	—	이사	이상희	예천 지역
사외이사	김기억	—		이엽	경주 지역
	남진희	—		이배영	청송 지역
이사	조동형	영천 지역	감사	송영호	문경 지역
	이범주	상주 지역		김상돈	고령 지역
	최수길	구미 지역			

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쓴 영광의 기록

예수금 5,000억 원 달성

대구경북양돈농협 수상

예수금 5,000억 원 돌파로 입증된 성장 저력

대구경북양돈농협이 상호금융 예수금 4,000억 원 달성탑을 수상한지 2년 만에 예수금 5,000억 원 달성탑을 수상했다. 지난 10월 2일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정례조회에서 상호금융 예수금 5,000억 원 달성탑을 수상했다. 상호금융 예수금 달성탑은 농축협의 건전경영과 내실 있는 사업성장을 유도하고자 농협중앙회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이번 대구경북양돈농협의 예수금 5,000억 원 달성탑 수상은 경기침체와 급변하는 금융시장 여건 속에서도 조합원과 고객들의 신뢰를 꾸준히 쌓아온 성과여서 더욱 의미깊다.

대구경북양돈농협은 삼성창조캠퍼스지점, 대천지점 등을 오픈하며 조합원들과 고객들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동지점을 이전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꾸준히 높여왔다. 이상용 조합장은 이번 상호금융 예수금 5,000억 원 달성탑 수상은 조합원들, 고객들과의 믿음과 사랑으로 일궈낸 소중한 성과라고 이야기하며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자산 1조 원 달성을 향해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2025년, 대구경북양돈농협에 행복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동안 조합과 조합원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펼쳐온 결과 지난 10월 예수금 5,000억 원 달성탑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다. 지난 4월 9일에는 대경양돈 박종우 조합원이 제7회 청정축산환경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청정축산환경대상 우수상



대구경북양돈농협 조합원 수상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대경양돈 모범 농가의 위상 뽐내



박종우

강산농장 대표
대구경북양돈농협
청도 지역 조합원

청도군 풍각면에 위치한 강산농장의 박종우 대표는 대구경북양돈농협 조합원이다. 그가 지난 4월 9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7회 청정축산환경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대경양돈 조합원의 저력을 보여줬다. '청정축산환경대상'은 농협경제지주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우수 축산환경개선 농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축산업에 대한 대·내외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매년 이루어지는 시상식이다. 축사 악취저감, 축사 환경 및 위생, 동물복지, 지역사회 공헌 등 복합적인 평가 기준을 가진 시상식으로 지역 예선과 전국 단위의 본선 평가까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날 수상 이후 박종우 조합원은 30여 년간 대경양돈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지원받았던 것들이 친환경 양돈농장 운영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축산 농가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산농장 박종우 조합원은 안전한 돈육생산을 위한 HACCP적용 사업장을 운영해 친환경 축산을 영위하고, 냄새 저감시설 구비 및 미생물제제 살포 등 축산환경 개선에도 솔선수범 하였을 뿐 아니라, 청년 장학금과 노인 복지기금 기탁 등 지역사회와 상생해 축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했다.

대경양돈 식구들의 소식을 전해요~

신규 조합원 & 조합원 경조사

함께이기에 더욱 든든한 우리는 대경양돈인! 2025년 대경양돈의 이름으로
함께하게 된 신규 조합원과 조합원들의 경조사들을 함께 실어본다.

조합원 경조사

경사

2025년 11월 기준

2025. 02. 배영순(고령) 자녀 결혼식
2025. 03. 신창엽(달성) 자녀 결혼식
2025. 04. 최해진(영천) 자녀 결혼식
2025. 05. 박광진(청도) 자녀 결혼식
2025. 05. 곽종현(경산) 본인 결혼식
2025. 09. 이근환(영천) 자녀 결혼식
2025. 09. 한영환(의성) 자녀 결혼식

애사

2025. 01. 김경연(울진) 모친상
2025. 01. 류상우(영천) 빙모상
2025. 01. 홍향란(문경) 모친상

2025. 01. 김봉기(영천) 모친상
2025. 01. 권현익(영주) 빙모상
2025. 01. 방원제(고령) 모친상
2025. 01. 권 열(성주) 부친상
2025. 02. 박민규(합천) 모친상
2025. 02. 장원익(경주) 빙부상
2025. 02. 윤석호(칠곡) 부친상
2025. 05. 곽종현(경산) 조부상
2025. 05. 유동현(문경) 조모상
2025. 08. 도창한(군위) 부친상
2025. 09. 허승락(성주) 모친상
2025. 10. 한정림(청도) 부친상

Daegu-Gyeongbuk
Pork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신규 조합원 소개

2025년 11월 기준

대구경북양돈농협 조합원

298명

문경시

유동현, 영농조합법인 한보축산

문경시

의성군
한영환

의성군

군위군
김휘찬

군위군

포항시
김정환, 예효준

포항시

구미시
석지훈

구미시

영천시
손봉출

영천시

고령군

이효정, 전재연, 정유나, 최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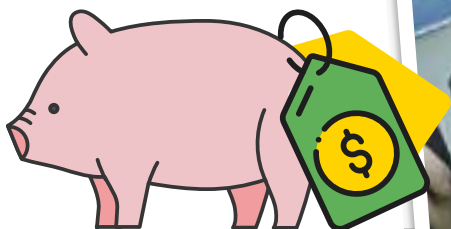
고령군



대경양돈과 기획재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힘을 합치다 돼지고기 수급 안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대구경북양돈농협은 지난 3월 11일 본점에서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강태수 국장, 축산물품질평가원 대구경북지원 김학성 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 돼지 사육 및 양돈 수급, 가격의 동향과 물가 안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 상승한 도매가격의 원인과 대처방안을 강구했다.

이어서 간담회에 참석한 한용규 조합원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양돈 농가의 애로사항을 다루었다. 물가 상승으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경 등을 통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및 인상 유예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최근 4년간 농사용 전력량요금은 7회에 걸쳐 2배가량 상승하는 등 상승폭이 매우 가팔라져 양돈농가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어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및 인상 유예 등의 대처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조합원의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산불 피해 현장 방문 및 구호물품 전달



대구경북양돈농협은 지난 3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 영덕, 의성 지역의 양돈농가를 급히 방문했으며, 3월 30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함께 의성 조합원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 및 점검하고 피해농가에 위로를 전했다.

대경양돈은 3월 22일 산불 발생 직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해당 지역 조합원들의 피해규모를 파악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 안동, 영덕의 피해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를 입은 조합원에게 생필품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물품과 피해복구지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산불 대응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농가 피해 경감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조기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범죄로부터 고객들의 자산을 지켜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실시



대구경북양돈농협은 지난 4월 29일 본점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따른 피해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경양돈은 지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상용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배너를 배치하고, 안내장을 배부하며 지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 출처 불명의 URL주소를 발송하여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 등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했다.

조합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과 돼지 출하 업무협의를

대구경북양돈농협은 지난 9월 1일, 본점 소회의실에서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장, 중매인,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 출하와 적정가격 유지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이번 업무협에서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은 대구경북양돈농협의 모든 출하 확대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대구경북양돈농협 조합원들이 생산한 품질 좋은 규격돈 출하의 확대를 요청하였다.

대경양돈은 중매인들의 적극적인 모든 구매와 고령축산물공판장의 계류장 확대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며, 청정축산을 위한 지속적인 도축작업장 환경 개선을 요청하였다. 또한 규격돈 출하와 관련하여 낮은 경락가격 형성에 따라 규격돈 출하를 기피하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매인들의 적정 경락가격 유지를 요청하였다.





민들만 한 우리 먹거리

애니팜유니버

소중한 사람을 위해 준비하는 밥상에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한복의 맛을 더해볼까요?
민들 표에 수 있는 애니팜유니버의 정초
식탁에 그 행복이 표어표기다



LIFE STORY

44 칼럼

삼출성표피염, 반복 발생의
고리를 끊는 법

48 Travel

이 겨울, 여행의 바람이 분다

50 레시피

돼지고기 특수부위 전성시대



박준우 과장(수의사)의 양돈 이야기

삼출성포피염, 반복 발생의 고리를 끊는 법

삼출성포피염은 한 번 문제를 일으킨 농장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쉽다.
근본 원인을 바로 잡지 못하면 어떤 처치도 임시방편에 그친다. 모든 건강과
분만사 관리 수준이 곧 통제 능력을 좌우한다.



박준우 과장(수의사)



01 양돈 Column

삼출성포피염이란?

삼출성포피염은 *Staphylococcus hyicus*가 원인균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이다. 이 세균은 돼지의 피부 표면과 모낭, 그리고 돈사 환경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상재균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농장으로 유입되는 NADC34 PRRS나 PED와 같은 질병과 달리 삼출성포피염은 '감염되었다'기보다는 '발현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동일한 세균이 존재하더라도 어떤 농장은 발생하지 않고, 어떤 농장은 한번 발생하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정상세균총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억제하는 능력은 돈군의 건강도와 돈사 환경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삼출성포피염은 현장에서 포유자돈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 이유자돈에서의 발생은 대부분 분만사에서 이미 조성된 위험요인이 이유 스트레스와 부적절한 환돈 관리로 이어지며 뒤늦게 분출되는 경우에 가깝다. 삼출성포피염을 근본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본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할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도록 만드는 기저 원인'을 찾고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장에서는 주로 '삼출'이라고 불리며, 육안 판별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발생 기전과 임상증상 등 기본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다양한 기저 원인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삼출성포피염의 임상증상

02 양돈 Column

영양 요인 : 초유 및 모유 섭취 부족

초유와 모유 섭취량이 부족한 자돈은 삼출성포피염의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초유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정상세균총의 비정상적 증식을 통제하는 능력이 약화되고, 모유가 부족할 경우 젖싸움이 반복되면서 피부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처는 *Staphylococcus hyicus*가 증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상처 부위의 삼출물과 오염된 분변은 세균의 성장을 더욱 가속한다. 이러한 이유로 초산돈 복에서 삼출성포피염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초산돈의 유량과 유질이 불안정한 자돈의 면역·생리적 요구량을 충분히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포유 기간 중 발생하는 젖뭍침은 초유와 모유 생산을 감소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삼출성포피염 예방의 핵심 역시 젖뭍침을 줄여 유량을 확보하는 데 있다.

첫째, 대기돈 단계에서의 변비 관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변비는 복부 압력을 증가시켜 유선 혈류와 초유 분비를 저해하며, 이는 분만 직후 젖뭍침의 주요 원인이 된다.

둘째, 모돈의 포유능력에 맞게 포유두수와 자돈 크기를 조절해야 한다. 포유강도가 부족하면 사용되지 않는 유두에 유즙이 정체되어 젖뭍침이 발생한다.

셋째, 포유모돈의 사료 증량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최대 급여량이 과도하면 에너지 과잉이 나타나 유즙 분비와 사용 간 균형이 무너지며 젖뭍침으로 이어진다.



부적절한 포유모돈 체형관리 또한 유즙 생산을 저하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대기돈 시기부터 지나치게 마른 모돈이거나 포유 중 체손실이 극심한 모돈은 유즙 생산보다 체손실 회복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 유량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분만 직후 자돈이 충분히 건조되고 체온을 회복한 상태에서 빠르게 초유를 섭취할 수 있도록 보온 환경을 조성하고 간호분만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에는 모체의 체온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하므로 임신돈의 일일 사료 급여량을 약 200g 증량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초유와 모유의 충분한 섭취는 삼출성표피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다. 각 농장은 모돈의 포유능력에 맞는 포유두수를 설정하고 사료 프로그램을 점검해야 하며, 등각기나 등지방 측정기를 활용하여 대기돈과 이유모돈의 체형 변화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량 부족으로 인한 1주차 포유자돈의 젖새움 흔적

03 양돈 Column

환경 요인 : 고온다습한 하절기

세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증식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여름철 분만사는 특히 취약하다. 외기 자체가 고습한 계절에는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유입하더라도 내부 습도가 쉽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며, 이는 자돈의 모농·피지션 환경이 세균 증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배기팬의 최대 환기량이 실제로 확보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중계팬을 추가해 습기를 적극적으로 배출해야 한다. 하절기 채널환기 방식의 분만사에서는 채널 공간에 물 웅덩이가 형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돈사 내 습도 증가의 출발점이 되므로 반드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04 양돈 Column

관리 요인 : 비위생적인 작업 및 돈사

자돈 손질 과정에서 시행되는 견치, 단미, 거세는 불가피하게 자돈의 피부에 상처를 만들며, 이 상처가 세균 증식의 초기 지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작업 도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분만사 전체의 위생 수준 또한 삼출성표피염 발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유모돈 전출 후에는 계면활성제와 소독제를 이용해 돈사를 철저히 수세·소독하고, 다음 대기돈이 전입하기 전 충분한 건조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분만사의 구조나 돈군 흐름 문제로 수세·소독이 어렵다면, 최소한 눈에 보이는 유기물이라도 모두 제거한 뒤 다음 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05 양돈 Column

질병 요인 : PRRS 바이러스

면역억제성 질병은 삼출성표피염 발생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PRRS가 대표적이며, 특히 최근 유행하는 NADC34 계통은 자돈의 면역체계를 크게 약화시켜 정상적인 피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분만사에서 PRRS 수직감염이 지속된다면 초유·모유 섭취가 충분하고 환경이 양호하더라도 삼출성표피염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분만사 내 수직감염을 차단하고 음성 이유자돈을 생산하는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06 양돈 Column

삼출성표피염의 통제

현장에서 삼출성표피염이 발생했을 때 많은 농장에서 다양한 사후 처치를 시도하지만, 대 기본 약욕, 유방 수세, 분만 직후 자궁세척과 같은 방법은 근본적 효과가 거의 없다. 앞서 언급한 기저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어떤 처치도 충분하지 못하다. 이미 발생한 복의 자돈을 다른 복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자돈에게도 위험을 전파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한 한 발생 복에 그대로 두고 조기에 발견하여 개체별 주사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다. 항생제 치료 시에는 피부로 약물이 도달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린코마이신·아목시실린·페니실린 계열 약제를 최소 3일 연속 주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분적인 치료는 결코 효과적이지 않으며, 동일 복의 모든 자돈을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돈들

결국 삼출성표피염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질병이 아니라, 농장이 가진 모든의 건강도, 환경 조건, 그리고 관리 능력이 그대로 반영되는 질병이다. 앞서 언급한 기저 원인의 관리가 적절한 농장에서는 삼출성표피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취약한 요소가 존재한다면 정상세균총이 언제든 '질병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량 부족으로 인한 젖싸움이다. 모돈은 반드시 충분한 유즙을 생산해야 하고, 포유자돈은 반드시 충분한 양의 초유와 모유를 섭취해야 한다. 만약 내 농장에서 삼출성표피염이 끊이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젖싸움이 언제부터 심화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삼출성표피염을 통제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치료가 아니라 '발현 조건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 겨울, 여행의 바람이 분다



경북에서 맞이하는 산타와의 특별한 하루

봉화 분천산타마을

소백산맥 아래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봉화군. 소천면 분천길에 위치한 봉화 분천산타마을은 겨울이 되면 북적북적 사람들이 모이는 경북의 대표 겨울 여행지다. 겨울과 여름 두 시즌에만 활성화되는 관광마을로, 마을 전체가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꾸며져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봉화의 매서운 겨울 바람이 눈이 되어 내리면 분천산타마을은 진풍경을 자아낸다. 분천역 주변에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산타와 루돌프의 장식 옆으로 산타카페와 산타레일바이크, 산타풍차방 등이 있다. 정겨운 볼거리는 눈을 즐겁게 하고, 이곳에서 남기는 사진은 겨울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한다.

© 봉화군청



경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길 49



바다를 넘어, 새해를 바라보며 비는 소망



포항 이가리닷전망대

겨울 바다는 특유의 고요함과 웅장함을 품고 있다. 새해가 되면 바다로 일출을 보러가는 이유는 시원하게 확 뚫여있는 바다를 보며 묵었던 감정을 풀어내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 아닐까. 겨울 바다는 그러한 힘이 있다. 올해 겨울 바다가 보고 싶다면 포항 이가리닷전망대로 향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늘 위에서 보면 닳 모양을 하고 있는 이가리닷전망대는 높이 약 10m, 길이 약 102m 규모의 해상 전망대로 전망대의 방향이 독도 쪽으로 향해 있어 더욱 특별하다. 독도 수호의 염원을 담은 디자인으로 새로운 포항의 관광 명소로 떠오르는 중이다. 전망대 인근에는 해송 군락과 깨끗한 동해가 어우러지는 자연환경으로 걷는 동안 바다 위에 떠 있는 느낌을 전해준다. 시원한 경치에 인생샷을 남기기에도 그만이다. 특히 맑은 날 바다 위로 보이는 석양이 지는 풍경은 최고로 꼽힌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거리 산 67-3

겨울바람이 풍경을 바꾸는 계절, 경북 곳곳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설렘으로 가득하다. 산타가 머무는 마을에서 동심을 깨우고, 푸른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 새해의 기운을 마주하며, 깊은 산골 정자에서 고요한 사색을 만나는 여행. 이 겨울, 경북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순간들이 여행객을 기다린다.



초록 숲 속의 고요한 휴식

안동 만휴정



소박하고 고요한 별서 풍경 속에서 자연과 사람의 사색이 어우러지는 공간, 안동에 위치한 만휴정이다. 만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만휴정은 조선시대 문인인 김계행이 말년에 독서와 사색을 위해 지은 별서정자다. 관직을 내려놓고 저녁에 물러나 앉았다라는 뜻처럼 안동 산골 안쪽에 위치해 번잡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쉬어가는 분위기로 인해 숲 속의 자연경관을 살피기에는 최적의 장소다. 만휴정의 정자 바로 앞에는 시냇물이 흐른다. 흐르는 시냇물과 폭포, 반석 위를 따라 흐르는 계류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건축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한 폭의 동양화처럼 보인다. 방문객들은 외나무다리과 고즈넉한 정자 등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긴다. 겨울철에 이곳이 더욱 빛나는 이유는 바로 물이 얼어붙었을 때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하는 것에 있다.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목계하리길 42

취향따라 즐겨요 돼지고기 특수부위 전성시대



돼지고기 하면 떠오르는 부위, 바로 삼겹살과 목살이다. 그만큼 오랜시간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부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돼지고기도 부위별 유행을 타고 있다. 바야흐로 특수부위 전성시대다.

항정살



요즘은 소비자의 취향이 트렌드를 만드는 시기다. 스테디셀러를 좋은 제품으로 내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는 일이다. 돼지고기에도 바야흐로 취향을 타는 특수부위 전성시대가 도래한 모습이다.

수많은 돼지고기집을 가도 이제 삼겹살과 목살만큼 눈에 많이 띄는 것이 항정살이다. 사실 항정살은 대중화되기 전, 귀한 부위로 불렸다. 지금처럼 인지도도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 이후 프리미엄 삼겹살식당에서부터 항정살이 새로운 메뉴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특수부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항정살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이 생겨난 것도 소비를 촉발시킨 요인 중 하나다. 아삭하고 쫄깃하고, 고소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항정살로 항정살 덮밥, 항정살 수육 등이 전파를 타면서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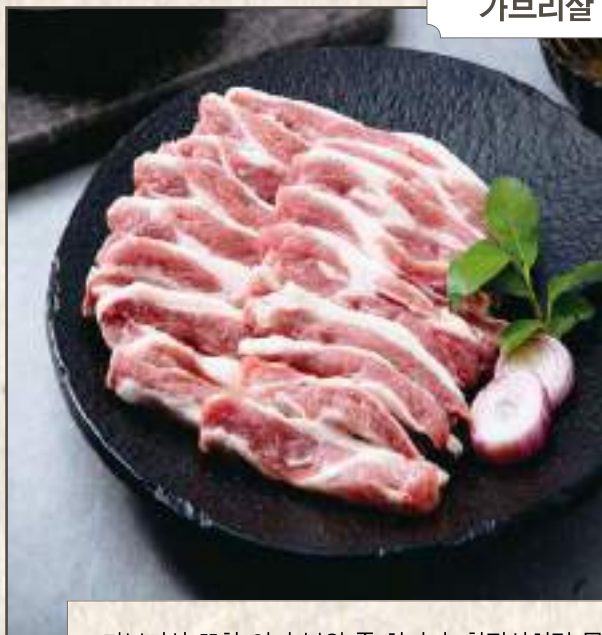


갈매기살



항정살에 이어 가장 인기를 많은 부위 중 하나, 바로 갈매기살이다. 돼지의 횡격막에서 나오는 부위로 돼지 한 마리당 200g 내외만 나온다. 다른 특수 부위에 비해 오래전부터 대중들이 즐겨먹던 고기였다. 근육 섬유가 얇고 결이 좋아 씹는 재미가 있지만 질기지는 않기 때문에 갈매기살을 원하는 매니아층이 많다. 삼겹살처럼 기름지지도, 목살처럼 딱딱하지 않아 취향의 폭이 넓다. 갈매기살은 보통 소금구이로 많이 먹으며 다양한 양념 요리 등에 활용되지는 않는다.

가브리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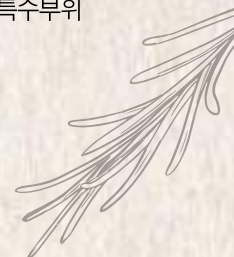


가브리살 또한 인기 부위 중 하나다. 항정살처럼 목 주변에서 나오는 부위로 항정살보다는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고소한 풍미와 탱글한 식감이 밸런스가 좋다. 특히 요즘 술밥에 가브리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 내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대구경북양돈농협
돼지고기 특수부위
판매 TOP 3



지금의 트렌드에서 핫한 부위를 꼽으라면 등심덧살과 꼬들살이다. 등심덧살은 등심 부위 겉면에 있는 부위로 해체 방식에 따라 늑간살이라고 판매되기도 한다. 특유의 식감과 감칠맛 때문에 인기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적당한 지방과 살코기가 균형을 잡고 있다. 또한 꼬들살은 뽕살로도 불리는 부위로 돼지 볼살이나 앞볼살 주변의 부위를 가르킨다. 꼬들꼬들한 탄력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돼지고기를 사랑하는 대중들에게 돼지고기 특수부위는 색다른 즐길거리다. 식감과 맛에 따라 특수부위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눈과 입을 즐겁게 한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돼지고기만 한 것이 없다. 올해는 돼지고기 특수부위로 겨울을 행복하게 나보자!





특별한 날엔 더욱 특별하게

올드림한돈 케이크

